

돌봄혁명

이지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1. 소개

이번 호에서는 지난 계간지(10호)에서 다뤘던 ‘탈성장과 돌봄’의 연장선에서, 독일의 ‘돌봄혁명’을 소개한다. 돌봄혁명은 그 논의의 일부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권김현영, 2021; 안숙영, 2021; 정은희, 2021a 등), 돌봄혁명의 제안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레 빈커Gabriele Winker 박사가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준)의 초청을 받아 2022년 2월 24일 돌봄혁명에 대해 강연¹⁾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혁신시킬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이후 독일에서는 뜻밖에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흐름이 강화된다. 에너지재공영화 운동, 부동산 대기업 사회화 운동,²⁾ 그리고 돌봄혁명이 그것이다(정은희, 2021a). 2014년 3월 베를린에서는 ‘좋은 삶과 더불어! 전 세계의 모두를 위해!’를 테제로 ‘돌봄혁명 집단행동회의’ Aktionskonferenz Care Revolution가 개최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8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급의 돌봄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돌봄혁명 네트워크’ Care Revolution Network를 결성했다. 의료, 간병, 보육, 교육, 주거, 가사

1) 정은희(2021a). 독일의 ‘돌봄혁명’ 논의와 쟁점. 제1회 가사돌봄사회화포럼 발표문.

2) 정은희(2020). 독일 함부르크, 에너지 재공영화로 ‘기후’도 ‘노동자’도 지킨다. 《참세상》. [2020년 12월 18일]. 정은희(2021b). 베를린 대기업 부동산 사회화운동 성공... 56.4% 찬성. 《참세상》. [2021년 9월 27일].

노동, 성노동과 같은 사회재생산 영역의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페미니스트 단체, 반세계화 그룹, 자율주의 개입주의 좌파, 통합서비스 노조, 교사노조, 노동단체 등이 참여했다. 10개 이상의 지부가 있으며 매년 정기포럼을 개최해왔다. 작년부터는 ‘돌봄을 위한 광장’ Platz für Sorge 운동을 발의했다. 가브리엘레 빈커는 돌봄혁명의 주요 논지를 확립한 학자이자 활동가로 현재 돌봄혁명 프라이부르크 Care Revolution Freiburg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돌봄혁명은 경제성장과 이윤극대화를 벗어나 인간의 필요를 사회 경제의 중심에 두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돌봄혁명은 지역적·초국적 단위에서 함께 수행되어야 완수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실존적 고통에 벗어나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물질적 자원과 시간을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이다. 둘째, 연대적 지원구조 건설을 위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무상 돌봄을 보장한다. 셋째, 민주적 참여형식의 발전이다. 이를 위해 돌봄위원회 설립 등 국가 기반시설을 민주화하고,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등 돌봄 영역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기업과 기관들을 사회화하고 지역 돌봄위원회를 신설한다. 넷째, 다양한 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적 조직 형태의 공유지 commons를 지원한다.

돌봄혁명 운동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혁명은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완전고용 중심의 재생산 모델이 전지구적 노동분업에 기초하여 기능할 뿐임을 폭로하며, 가능한 모든 사람의 고용가능성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한 일사회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필요 needs를 중심으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분할을 넘어, 사람들은 일 전체를 스스로 혹은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에서 기본소득은 인간의 필요를 일부 충족시키고 실존을 안정시키는 자원으로 기능한다.

둘째, 운동의 차원에서 연대 개념이다. 빈커 박사의 인터뷰(2018)에서 소개한 연대의 실천적·교차적·다차원적 접근처럼, 개인은 다차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돌보는 존재로 그려진다. 돌봄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돌봄혁명은 풍부한 사회적 관계들을 개발·복원하고 나아가 반차별과 반배제, 반혐오를 원칙으로 한 연대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다른 운동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경계 짓기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 일상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초국적 단위까지 크고 작은 혁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더욱 강한 공통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돌봄혁명은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이제 초기 단계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지지하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접점을 확인하고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출현시키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독일의 돌봄혁명가들은 기본소득을 어떠한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돌봄혁명의 주창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레 빈커 박사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이를 통해 돌봄혁명의 주창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리고 있는 ‘연대 사회’의 상과 실현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을 높일 수 있는데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번역] 돌봄혁명³⁾

1) 서문

가브리엘레 빈커는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학 노동-젠더-기술학(Arbeit-Gender-Technik) 교수이다.⁴⁾ 빈커는 자신의 작업에서 항상 이론적 분석과 과학적 결과를 정치적 행동과 결합하려고 시도한다. 빈커는 ‘돌봄혁명’ 운동의 주요 창시자 중 한 명이다. 이 정치적 참여는 긴축정책의 맥락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그녀의 분석을 근거로 한다. 돌봄혁명(Care Revolution)은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을 포함하고 이를 연대 사회(solidary society)의 비전과 결합한다. 돌봄혁명은 돌봄 부문의 정치적 전환 전략(political transformation strategy)으로써, 중국에는 사회의 정치적 전환 전략으로써, 모든 돌봄제공자와 수혜자를 포함하여 사회운동, NGO, 노동조합 등에 헌신한다. 돌봄혁명은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 간의 협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치적·과학적 관점을 결합하고자 한다. 평등, 다양성, 포용(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의 이번 특별 호에서 논의된 것처럼, 돌봄혁명은 경제, 정의,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는 가브리엘레 빈커를 초대하여 그녀의 이니셔티브, 배경, 아이디어, 실천, 관점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2) 가브리엘레 빈커와의 인터뷰

아우렌바허, 리그라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독일의 긴축정책에 의해 촉발된 돌봄과 돌봄노동을 주제로 한 저항운동 중 돌봄혁명 네트워크는 가장 주목받은 활동가 연합입니다. 돌봄혁명 개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또 같은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었죠.⁵⁾ 동기는 무엇이며, 이 일을 통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빈커: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제반 조건(framework conditions)이 완전히 불충분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은 정치 영역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직장가 가족의 삶에서의 요구들을 다뤄야 하는지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그들 능력의 한계치까지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령 지속적인 교육과 체력관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유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피로도는 특히 여성이 수행하는 가족 돌봄 노동에서의 높은 요구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실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숙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건강한 식사를 보장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미 성취에 대한

3) 2018년 <평등, 다양성, 포용(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저널에 실린 빈커 박사와의 인터뷰 전문을 번역하였다. 인터뷰어는 오스트리아 린츠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의 사회 및 사회 분석학과 교수인 브리기에 아우렌바허(Britte Aulenbacher)와 독일 파더보른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비르그트 리그라프(Birgit Riegraf)이다. (감수: 안효상)

4) 2003년~2019년까지 함부르크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돌봄혁명의 전환전략에 관한 출판과 정치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연대적 돌봄경제: 돌봄과 기후를 위한 혁명적인 현실정치(Solidarische Care-Ökonomie: Revolutionäre Realpolitik für Care und Klima)』를 출간하였다.

5) Winker, G., Aulenbacher, B. and Riegraf, B. (2018), “Care Revolution”,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Vol. 37 No. 4, pp.420-428.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가 무력한 자녀를 만납니다. 그들 모두는 홀로 또는 함께 보내는 여가,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이 선택한 대로 보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스스로 부과한 과부하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중국에는 정신질환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 번아웃과 중독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우울증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돌봄 직종에서 불균형적으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비용에 대한 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상하려고 하며, 어떤 경우에는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돌봄노동의 제반 조건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과 정부정책은 현상유지에 집요하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최대 가치증식 *valorisation* 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가능한 한 최고 수익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또한 독일의 가족정책을 규정합니다. 돌봄노동자를 지원하지 않으며 주로 여성의 고용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목표는 경제정책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돌봄노동 조건의 개선 방향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돌봄 운동은 끈기 있는 인내와 현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의 진정한 혁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제가 2009년에 처음 개괄한 돌봄혁명 개념의 접근방식입니다. 2012년 대항 세력이 필요하며, 이 대항 세력은 사회운동에서 출현해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치 영역에서 동료활동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돌봄혁명은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전환 전략 *transformation strategy* 입니다. 동시에 일상적인 돌봄 관계에서 돌봄노동자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돌봄혁명은 이윤극대화 대신에 인간 필요의 실현 *the realisation of human needs* 을 사회 및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는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산 노동에 대한 페미니스트 정치의 통찰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혁명은, 돌봄노동의 근원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 전략이나 지배적인 경제 이론에 등장하지 않는 돌봄노동이 사회변화의 준거점으로 선택됩니다. 가족적, 자발적, 전문적인 모든 형태의 다양한 돌봄 관계 *caregiving relationships* 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혁명의 첫 번째 목표는 환자, 실업자, 난민, 한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실존적 고통에 벗어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물질적 자원과 시간을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관심사는 돌봄 노동이 더 이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돌봄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의 요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봄혁명의 목표는 인간의 필요를 지향하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사회이며, 특히 유급 돌봄노동과 무급 돌봄노동의 구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저는 이를 “연대에 기초한 사회 *society based on solidarity*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우렌바허, 리그라프: 돌봄혁명은 정치 프로그램이고 활동가 연합은 다양한 그룹과 이니셔티브로 구성됩니다.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목표의 공통적 요소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빈커: 돌봄혁명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정치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돌보는 친척 이니셔티브에서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룹, 부모 이니셔티브와 이주조직에서 간호와 아동돌봄 직종의 노동조합 지부, 아탁^{attac}과 같은 사회운동 단체에서 쿼어 페미니스트 및 급진 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2014년 베를린에서 열린 전국 활동가 회의에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80개 협력파트너가 돌봄혁명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독일에는 대도시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10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적인 돌봄 관계에서 돌봄 노동자의 이익과 사람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돌봄혁명으로 대표되는 이니셔티브의 상당 부분은 페미니스트 또는 쿼어 페미니스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1970년대부터 페미니즘의 두 번째 물결의 일환으로 무급 재생산 노동의 재평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오늘날, 돌봄자원의 개선을 위한 투쟁 차원으로서, 활동가들은 세대를 아울러 페미니스트 의제를 사회의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재구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학자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더 많은 돌봄을 Care.Macht.Mehr”입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활동가들이 반자본주의와 페미니스트 입장을 결합하고 구조적 위기와 관련된 자기 삶의 상황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후자는 블록큐파이^{Blockupy} 시위에 참여한 돌봄혁명 그룹이기도 합니다.

또한 돌봄혁명 네트워크의 일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돌봄기관^{care-institution} 노동쟁의에 관여해 온 노동조합 지부입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서 가장 큰 병원인 샬리테^{Charité}의 통합서비스 노조^{ver.di} 지부와 직원협의회^{staff council}는 간호사를 위한 최소 직원 보장에 대한 독일 최초의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노동쟁의는 “베를린 거주자에게 더 많은 의료인을 Berlinerinnen und Berliner für mehr Personal im Krankenhaus” 협회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협회는 현재 샬리테의 통합서비스 노조 지부와 함께 돌봄혁명 네트워크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협회는 잠재적 환자의 이익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연대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시립 아동돌봄 시설에서의 분쟁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5년 총파업 당시 요구사항 중 하나는 아동돌봄 시설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임금인상의 형태로 인식되었습니다. 부모를 파트너로 동맹에 참여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돌봄혁명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자치시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세탈^{Lossetal}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데이케어센터는 1986년에 니더카우퐁엔^{Niederkaufungen}에 설립된 코윈 내에 있는 직장입니다. 이 코윈에는 약 80명이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포함해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에는 코윈의 다른 구성원, 이웃, 친척이 가능한 광범위하게 참여합니다. 한편으로 이는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전략이며, 다른 한편으로 지역에서 상부상조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이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전문적인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데이케어 센터가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가족 돌봄노동의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Wir pflegen-Interessenvertretung begleitender

Angehöriger und Freunde(우리는 돌본다 - 동반 친척 및 친구의 이익의 대변)” 협회에 의해 “돌봄을 통한 빈곤Armut durch Pflege”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피해를 입은 가족,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아마도 상당한 돌봄수당의 형태로 돌보는 친척을 위한 물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협회의 요구사항은 항상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불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니코스팜Nicos Farm 협회는 다른 방법을 통해 유사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장애로 인해 평생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그 부모 자신이 돌봄에 의존해야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협회는 독일의 뤼네부르거 하이데Lüneburger Heide, 뤼네부르거 숲에서 숙박, 고용, 치료 기회를 포함하는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봄혁명과 협력하는 이니셔티브들의 한 가지 강점은 이질성heterogeneity입니다. 돌봄이라는 주제는 매우 다른 배경, 즉 매우 다른 정치적인 생각, 삶의 개념,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겁니다. 첫 번째 활동가 회의,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 활동 속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호기심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항상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 간의 협력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실제적이고 다면적인 투쟁과 대안 프로젝트가 돌봄노동의 모든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그룹들과 개별 돌봄혁명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국제 노동자의 날)에 여러 도시에서 돌봄혁명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보이지 않는 돌봄노동의 악명 높은 제반 조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활동가들은 기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종종 실존적 투쟁은 필연적으로 이니셔티브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많은 돌봄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시간과 돈의 부족, 지속적인 돌봄 책임 또는 불안정한 생활조건으로 인한 유연성 부족은 더 많은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집단적 노력이 실제로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돌봄혁명이 사회운동으로서 더 많은 대중에게 출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우렌바히, 리그라프: 돌봄혁명에 대한 당신의 책에는 독일의 돌봄 및 돌봄노동 조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자기 돌봄과 돌봄caregiving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탈자본주의 또는 신사회주의 사회, 연대 기반의 평의회 민주주의의 비전council-democratic vision of a solidarity-based에 통합됩니다. 돌봄과 돌봄 노동의 재구성을 위해 특히 중요하게 보이는 학문적 분석과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빈커: 물론 모든 돌봄노동자들에게 실존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몇 가지 개혁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의 도입, 유급 근무일을 크게 단축하여 무급 돌봄노동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하고 창의적인 여가시간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실존적 불안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일work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논쟁들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영구적으로 평가절하된 돌봄노동과 시민사회 및 정

차적 참여는 유급노동과 함께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이자 돌봄혁명의 핵심목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민주적으로 다양한 돌봄 부문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특히 돌봄의 공동 조직은 실존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사회기반 시설로부터 매우 다양한 것들 원합니다. 가령, 아동돌봄, 노인돌봄, 예방 의료 또는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집단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프로비전^{provision}을 개발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더해, 특히 돌봄 기관들의 경우,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회기반 시설이 도시 지역이나 마을에 분산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비교적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민주화의 전제조건은 돌봄 시설을 사적소유에서 회수하여 자본주의적 가치증식 과정에서 철회하고 다시 일반 대중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치료 받으며 교육받을 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봄 부문의 민주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경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원탁회의, 지역 총회 또는 돌봄협의회를 설립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을 민주화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나 마을에서 풀뿌리로 설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금마련에 대한 의무 없이 세금으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센터, 다세대^{multigenerational} 주택 프로젝트, 보건센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등과 같이 수많은 프로젝트가 이미 존재합니다. 목표는 각 지역 안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경로 모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돌봄시설의 조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의 자치정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봄을 잘 조직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한데 어울려, 다른 능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겪어나갈 수 있습니다.

돌봄 부문을 민주화하는 것에서부터 돌봄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를 조직하는 것은 그리 큰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국가, 가족 전체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인간의 필요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입니다. 따라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질적/양적으로 적절한 일 프로세스에 따라 사회적 수준에서 맞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장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면,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필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 저는 이것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 전체, 즉 현재 유급과 무급노동은 모든 사람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은 기반 시설 건설, 공동주택 건축, 유기농 식품 혹은 무공해 제품의 생산,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자신의 기술^{skill}을 얼마나 투여할지의 여부와 정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체적인 공유지 기반 동료생산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공존의 획기적인 형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일의 조직과 분할, 일의 결과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리고 동료로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돌봄조건을 위한 돌봄 투쟁에서 얻은 경험은 포괄적 사회화^{comprehensive socialisation}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 부문을 넘어 확장할 수 있으며,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목표는 퀴어-페미니스트적 통찰에 근거하여 성별, 성적 지향, 사회적/민족적 배경, 국적, 신체적 능력과 같은 사회적으로 확고한 범주에 기반한 배제와 차별에 매우 일관되게 저항해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를 돌보는 개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경우, 우리의 정치적이고 여러 다른 활동들에서 우리와 다르게 구성된 사람들에 관해 우리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규모를 포함하여 집단과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모욕에 저항하고 열린 협력 문화를 실천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닌 연대를 핵심 조직원칙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돌봄 혁명의 목표인 ‘연대에 기초한 사회(society based on solidarity)’입니다.

아우렌바허, 리그라프: 당신의 책에서 학술연구와 정치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더 암묵적으로, 현재의 돌봄 체제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대안적 비전이 시작되는 곳을 그려냅니다. 당신은 돌봄혁명을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언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학자로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주제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회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에 뛰어 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문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학문과 정치, 또는 사회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것이 당신이 돌봄혁명에 참여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까?

빈커: 학자로서 제 역할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수행한 분석과 경험적 결과가 사회의 인간화(humanisation of society)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론적 관점은 항상 주체지향적 연구(subject-oriented research)였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2009년에 니나 데겔레(Nina Degele)와 저는 실천학적 교차적 다차원 접근 방식(praxeological intersectional multilevel approach)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⁶⁾ 이 책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이론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알려진 사회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적 실천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위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방해물을 확인하고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며 또한 저항을 실천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경험적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구조와 규범에 직면한 결과로서 각자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통찰을 얻기 위해 공동연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연구를 통해 완성된 주체 구성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결과적인 사회적 지위, 차별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이 현재 사회의 형성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교차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적 실천과 행동방식이 일으킬 변화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러한 통찰들은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에 따라 삶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도록 점차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행위 연구(action research)의 원칙에 따라 공동

6) Winker, Gabriele: Degele, Nina: Intersektionalität. Zur Analyse sozialer Ungleichheiten. Bielefeld: transcript, 2009

연구자로서 적어도 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의 제한적인 행동이 어떻게 삶의 전망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이에 대해 차츰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의 경계를 넘어 정치와 연구의 연계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매년 돌봄혁명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돌봄혁명 활동가들이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이를 정치화할 기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대한 분석이나 연대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사고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나의 학문적 통찰력을 정치적 행동의 준거점으로 삼는 것 외에 학문의 다른 어떤 방식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 홀츠캠프⁷⁾의 비판심리학^{critical psychology}에 따라 논하자면, 저는 비판적 학문이 주체의 실천으로부터 발전되어야 한다면,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서 제 분석의 더 나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저는 열정적인 학자로 남아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가능한 자주 협력하여) 사회의 구체적인 측면과 씨름하고 책상에서의 분석적 성찰과 결합하는 것만이 저를 비판적 학자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우렌바허, 리그래프: 오랜 시간 동안, 전지구적 발전과 지역적 발전의 관계는 사회학에서 성찰해온 일반 주제였습니다. 세계화^{globalisation}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 세기 말 이후 초국적^{supra-, inter-, trans-} 그리고 국가적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얽혀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주제로서 돌봄과 돌봄노동은 결코 지역적이거나 국가적^{national}이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돌봄혁명의 아이디어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 돌봄혁명에서 그리고 사회 분석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빈커: 돌봄혁명의 전환 전략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제 사고로부터 분석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저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임금 노동과 무급의 재생산 노동의 결합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재생산 비용이 과도해지지 않으면서 가능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매우 유능한 노동자들을 요구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감축하려는 시도가 현재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임금을 낮추고 임금노동의 강도가 강화되고, 야간 및 휴일까지 임금노동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별, 혼인 여부, 부양자녀와 친척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가능 연령의 사람들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사회 분야의 국가 급여가 줄어들고 사회적 이전지불의 개인 안전망이 제한됩니다. 한편,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 일은 점점 더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은 가족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생산 노동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와 친척을 돌보는 일이 무보수로 진행되고 고립되어 사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발전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

7) Holzcamp, Klaus: Grundlegung der Psychologie. Frankfurt/New York: Campus, 1983

력 재생산 비용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능한 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윤 극대화와 노동력 재생산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는 한, 노동자의 양적/질적 가용성(availability)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자본의 가치증식 조건을 상당히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저는 과잉축적 위기 분석에서 훨씬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근본적으로 재생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는 데이케어 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아주 가끔씩만 대응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상승하면 독일 자본의 가치증식에 실질적 기초가 되는 무역 수지 흑자가 더 이상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과 직결됩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은 돌봄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돌봄 운동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사람들의 삶과 종종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진정한 혁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적인 돌봄 혁명은 또한 돌봄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제반조건을 위해 지역적으로 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만 활동구성원이 있는 오늘날의 독일어 사용지역 돌봄혁명에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 분석에 글로벌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했지만,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영향은 국경을 넘어 관찰될 수 있으며, 돌봄혁명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돌봄노동 분야에서 매우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따라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숙련 노동자의 부족은 가령 돌봄 직종에서 외국인 숙련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일의 직업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신 국가에서 숙련노동자가 고갈되면 해당 국가의 사회적 재생산 위기는 악화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이주 가사도우미 또는 24시간 돌봄노동자 중에서 보수가 좋은 개인은 신자유주의 재생산 모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임금 격차로 인해, 부유층은 돌봄 노동의 요소를 상업화하여 고용조건이 불규칙한 이주 여성에게 돌봄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보장 혜택이 없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며 병가나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사 영역에 24시간 고용된 돌봄노동자에게는 독일 노동시간법이 정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재생산 모델(고용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고용)은 매우 부당한 전지구적 분업에 기초하여 가능할 뿐입니다.

아우렌바허, 리그라프: 돌봄혁명에 대한 초기 생각들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바라본다면, 돌봄혁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또 어떠한 변화를 원하고 의도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빈커: 돌봄혁명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지난 3년 동안, 돌봄에 대한 담론뿐 만 아니라 돌봄 혁명에 대한 담론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 활동을 통해 점점 더 헌신적인 개인과 정치단체가 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정당이나 교회 단체 그리고 좌파와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에서 온 청년과 같이, 매우 다양한 조직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폭넓은 독자층을 보유한 여성잡지 브리짓 우먼(Brigitte Woman)과 좌파 논쟁의 중요한 저널인 “분석과 비판(Analyse und Kritik)”에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초기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다음 목표는 지역과 도시에서 우리의 지역 활동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 직원을 위한 구호 동맹으로 알려진 단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돌봄혁명가로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잠재적 환자들이 순전히 자신의 이익에 기반하여, 더 높은 의료인의 수준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봄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은 모두를 위한 노동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 환자와 가족구성원의 이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캠페인이 끝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맹에 참여했던 그룹은 이후에 계속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으로, 지역 돌봄협의회의 설립이 향후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인 프라이부르크 돌봄혁명 지부는 이러한 돌봄협의회(care council)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돌봄협의회의 회의들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로서 일상생활, 노동조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주제에 따라 이들은 유치원 교사, 부모, 돌봄노동자, 환자, 돌보는 친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페미니스트 활동가 또는 직원 평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돌봄위원회는 돌봄 이슈에 대한 공적 담론을 지속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부정의 사례에 대해 주의를 끌 수 있으며, 이러한 불의의 원인을 폭로하고 다른 정치적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다소 산발적이었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돌봄 분야에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영속화하고, 그리하여 향후 공통의 방식(common approach)에 대한 토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돌봄혁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탈성장 운동과 같은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생태지향적 정치 실천에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필수(necessities)를 중심에 두고, 전반적으로 삶/생명(life)에 관심을 두며,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적 제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핵심을 구성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자본주의 발전이 낳은 다양한 결과, 즉 생태계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모두를 파괴한 것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합니다. 이것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삶/생명 프로젝트를 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됩니다. 개인의 투쟁들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 대안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별운동에서 온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만나 정치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 그들이 오래되었던 새로운 것이든 배제를 피하면서 대안적 사고와 실천에 대해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권김현영(2021). 산업혁명 넘어 돌봄혁명으로. 문화일보. 《문화일보》. [2021년 1월 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0401031312000001>

안숙영(2021). 독일에서의 젠더와 돌봄혁명 논의. 『세계지역연구논총』 39(1), 137-164.

정은희(2020). 독일 함부르크, 에너지 재공영화로 ‘기후’도 ‘노동자’도 지킨다. 《참세상》. [2020년 12월 18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622>

정은희(2021a). 독일의 ‘돌봄혁명’ 논의와 쟁점. 제1회 가사돌봄사회화포럼 발표문.

정은희(2021b). 베를린 대기업 부동산 사회화운동 성공... 56.4% 찬성. 《참세상》. [2021년 9월 27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263&page=1>

정은희(2022). 독일 ‘돌봄혁명’ 제안자 가브리엘 빈커, 강연자로 나선다. 《참세상》. [2022년 2월 22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540>

Winker, G., Aulenbacher, B. and Riegraf, B. (2018), “Care Revolution”,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Vol. 37 No. 4, pp.420-428.

https://www.gabriele-winker.de/pdf/Interview_Care_Revolution_EDI.pdf

돌봄혁명 홈페이지 <https://care-revolution.org/english/>

가브리엘레 빈커 홈페이지 <https://www.gabriele-winker.de/english/index.html>